

구도시 재생정책을 위한 인과관계 분석

Causal Relations Analysis for Older City Regeneration Policy

황희숙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Hee-Sook Hwang(hee@shinhan.ac.kr)

요약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올바른 재생정책의 방향과 비전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중소도시의 재생 정책은 획일적인 물리적 재개발정책이나 예산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의 집단 효능감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지방중소도시의 구도심 주민들을 대상으로 과거와 비교한 현재의 쇠퇴정도를 물리적 부문뿐만 아니라 경제·사회·환경·인구·교육·복지·문화 등의 종합적인 부문에 대해 분석하여 각 부문별 쇠퇴양상과 정도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다. 또한, 두 번째 목적은 구도심 주민들의 쇠퇴 지각이 지역주민의 집단 효능감과 재생사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인과 관계와 그 영향정도를 규명 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경기북부 D시 설문에 참여한 시민으로 응답한 설문지 309장을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SPSS 22.0과 AMOS 22.0을 활용하였고,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적 의의는 지방중소도시의 재생정책 마련에 필요한 연구 자료가 되며, 시사점으로는 쇠퇴현상에 대한 정량적요인 뿐만 아니라 정성적 요인에 대한 다양한 현상을 종합하여 도시쇠퇴수준 및 특성을 꾸준히 연구하고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개발정책에 대안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 | 도시쇠퇴 | 재생 | 공동체 | 사회적관계 |

Abstract

For urban regeneration, the direction and vision of the correct regeneration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Therefore, the regeneration policy of local small and medium cities should be able to increase the collective efficacy of local residents from the uniform physical redevelopment policy or budget support.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esent decline in the degree of decline of old urban residents in small and medium cities, Social · Environment · population · education · welfare · Culture, and so on, revealing the difference in the pattern and degree of decline among the various sectors. Seco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ived decline of old residents and the influence of local residents on collective efficacy and attitudes toward rehabilitation projec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309 questionnaire respondents who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of D city in Gyeonggi - do. For statistical analysis, SPSS 22.0 and AMOS 22.0 were used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judged based on significance level .05.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e research data necessary for the regeneration policy of local small and medium citie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level and characteristics of urban decline by integrating various phenomena of qualitative factors as well as quantitative factors of decline An alternative to developmental policies that address regional disparities can be suggested.

■ keyword : | Urban Decline | Regeneration | Community | Social Relations |

I. 서론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올바른 재생정책의 방향과 비전이 마련되어야한다 이를 위한 판단 근거의 기초자료는 지역의 쇠퇴가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쇠퇴진단에서부터 시작 된다고 할 수 있다. 정확한 쇠퇴 진단이 가능한 쇠퇴 지표에 관한 선행 연구를 고찰 하여보면 도시 및 지역의 쇠퇴는 단순한 지표로 측정될 수 없는 고차원적인 개념 이다 즉 공무원과 주민은 주변 지역의 쇠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여길 수 있으나 실제로 쇠퇴 지각은 다양한 부문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연관 되어 있으므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부문별 지표를 이용하여 종합적인 차원으로 검토 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지방중소도시의 구도심 주민들을 대상으로 과거와 비교한 현재의 쇠퇴정도를 물리적 부문 뿐 만 아니라 경제·사회·환경·인구·교육·복지·문화 등의 종합적인 부문에 대해 분석하여 각 부문별 쇠퇴상상과 정도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다. 또한, 두 번째 목적은 구도심 주민들의 쇠퇴지각이 지역주민의 집단 효능감과 재생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과 관계와 그 영향정도를 규명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결과는 향후 지방중소도시의 재생정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 연구 자료가 되어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개발정책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집단 효능감

지방정부는 지역개발의 일환으로 새롭게 지역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지역발전에 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강조 된다 기존연구에 의한 지역주민들의 노력과 마케팅활동이 선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노력과 지자체의 활동이 지역에 미치는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구자룡 이정훈(2008)[1] 이것은 최근 지역주민의 집단효능감에 미치는 인과관계와 그 영향정도에 있다는 결과이다. 이세규(2010)[2] 효능감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소유한 지식, 기술 그리고

능력이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 또는 믿음’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 집단, 조직, 국가의 차원까지 적용 될 수 있다. (Bandura 1986)[3] 집단효능감은 Bandura 의 자기 효능감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특수한 과업을 수행 할 수 있는 자기 효능감의 개념을 집단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 집단 효능감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Riggs와 Knight(1994)[4]가 주장한 ‘집단이 효율적으로 일할 능력이 있다는 집단구성원의 신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별히 구도시 쇠퇴지각을 분석하고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물리적 쇠퇴 지각, 사회적 쇠퇴 지각, 경제적 쇠퇴 지각, 환경적 쇠퇴 지각, 인구부문 쇠퇴 지각, 교육복지 쇠퇴 지각과 재생 태도, 그리고 집단 효능감과 의 관계를 분석 하였다.

2. 쇠퇴 지각

우리나라에서도 쇠퇴지표에 관한 연구가 진행 되어 오면서 특히 조진희·이동건·황희연(2010)[5]은 도심 쇠퇴의 물리적 질저하를 기반시설의노후화 오픈 스페이스 부족 건축물의 과밀정도 불량주택의 과밀 그리고 편익시설의 부족 등으로 쇠퇴요소를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박병호·김준용(2009)[6]은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쇠퇴에 관한 연구에서 물리 부문의 쇠퇴지표로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노후주택비율 농가 비율 등을 이용하여 검증한 바 있으며 임준홍·황재혁·임관률(2009)[7]은 쇠퇴의 요인 중 주택부문을 노후 주택과정 주시설 부문을 편의시설의 노후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이상대(1996)[8]는 기반시설부족 및 노후화와 물리적 노후화로 보았다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다양한 지표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 도로 공동시설 기반 시설 등의 노후 도를 세부지표로 선정 하였다 사회부문의 쇠퇴지표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지방중소도시의 구도심 구성원이 서로 만나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사회 공간이며 이는 주민의 삶의 질 사회참여 지역의 정치·경제 발전과 쇠락 등이 지역주민의 유대 규범과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되는 단위이기도 하다. 이 같은 이유로 사회부문의 쇠퇴는 “자발적 결사체나 지역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근린지역사회를 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사회참여 반사회성 쾌적성 안정성 등이 세부지표로 검토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같은 관점에서 한경원(2006)[9]은 근린 무질서의 개념을 통해 안전도 낙서정도 길거리를 어슬렁 거리는 사람의 빈도 기물파손 정도등을 사회적 쇠퇴지표로 소개하였다.

그리고 광현근(2003)[10]은 노숙자 범죄율 취객 정도 이웃 관계 안전성 등을 통해 사회적 쇠퇴를 측정하였으며, 이상대(1996)는 저소득층의 집중과 사회문제의 집중 그리고 활력 부족 등을 쇠퇴의 원인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 하였다 사회적 쇠퇴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구성원의 기물파손 정도와 알코올 중독자 방치 정도 등의 반 사회성 그리고 지역의 안전성 감소정도와 낙서 혹은 쓰레기 투기 정도 등을 세부지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부문은 지역성장과 쇠퇴를 가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 이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조진희·이동건·황희연(2010)은 도시쇠퇴 수준 및 특성에 관한 유형화 연구에서 산업 쇠퇴를 총 사업체 수 감소 총 종사자 수 감소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도시 산업 구조 열악 산업 규모 감소 등을 통해 규명 하려고 하였다 임준홍·황재혁·임관률(2009)은 경제부문의 쇠퇴 지표를 일자리 감소 산업 감소 상권 이탈 그리고 재정자립도 악화 등으로 보고 있었으며 김준용·박병호(2009)는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복합 쇠퇴지표에 관한 연구에서 산업·경제부문의 쇠퇴진단지표로 1,000인 당 종사자수 사업체 당 종사자수 제조업체 증감률 등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소득 관련 부문은 주민의 소득수준과 지방세 징수액등을 활용 하였으며 부동산 가치 부문은 임대료 건물 가격 또는 지가 그리고 건물 수선비 등을 사용 하였다 그밖에도 도시경제쇠퇴를 측정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재정수준 특정 산업의 특화 정도 직장 지자체 재정 상태 중앙 재정의 의존도등을 이용 하였다. 또한 장희순·송상열(2007)[11] 우리나라 비성장형 도시의 특성분석에 관한연구에서, 이상대(1996)는 고용감소 2차산업 활동의 감소 높은 부동산 지가등을 통해 내부 시가지의 경제적 쇠퇴를 설명 하려고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경제적 쇠퇴 부문의 세부지표는 지역 주민의 실업률 지역의 부동산 가치의 하락 정도 상업 활

동의 감소 정도 그리고 지역에 대한 투자 가치에 대한 하락정도 등을 경제적 쇠퇴 부문으로 정의 하였다 지역의 환경 지표는 분야별로 환경 보건 대기질 수자원 생물 다양성 자원의 지속 가능한 자연 에너지 등의 세부 지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III. 연구방법의 설계

1. 설문지 구성

본 연구는 ‘구 도시 지역주민들의 쇠퇴지각이 집단 효능감과 재생태도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칠 것 인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주민들의 쇠퇴지각은 다양한 도시쇠퇴항목에 관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였으며 그리고 집단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은 장희순·송상열(2007), Bandura(1986)와 정윤길·이규만(2007)[12]등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설문문항을 재구성 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진행한 통계분석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의 대소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 통계(Descriptive statistic)를 산출하였고,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왜도(Skewness) 및 첨도(Kurtosis)를 산출하였다. 셋째, 지역 편차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넷째, 구조방정식 모형에 포함될 변수들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개념 타당도, 수렴타당도, 판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다섯째, 변수들 간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SPSS 22.0 과 AMOS 22.0을 활용하였고,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3.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D시의 시민으로 설문에 참여한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응답한 설문지는 309장이며 그중 남자는 127명(41.1%)이며 여자는 182명(58.9%)이다. 연령으로는 30세에서 40세(23.6%)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40세에서 50세(21.4%), 60세이상(12.9%) 순으로 참여하였다. 가계소득은 2000만원- 3000만원사이(31.4%)가 높게 나타났다. 직업으로는 기타군(40.5%), 사무직(18.4%), 자영업(12.0%) 무직(10.0%)순이었다. 학력으로는 고졸(43.0%) 대졸(39.8%) 대학원졸(7.1%)순이었다.

가족구성은 4인 가족(47.2%)이 가장 많았으며, 2인 가족(23.9%) 1인 가족이 (6.5%), 기외도 (22.3%) 로 나타났다.

거지지 별로는 송내동이 (24.3%), 상패동 (15.5%), 생연1동 (14.6%), 생연2동(13.3%), 불현동(13.3%), 중앙동 (6.8%) 소요동(6.8%), 보산동(5.5%)순이었다.

거주기간으로는 20년 이상 거주기간 (24.3%), 3년 이내 거주기간(20.4%), 10년에서 20년 사이 거주기간 (20.1%), 5년에서 10년 거주기간 (19.7%), 3년에서 5년 거주기간(15.5%)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127	41.1
	여자	182	58.9
연령	30세 미만	96	31.1
	30-40세	73	23.6
	41-50세	66	21.4
	51-60세	34	11.0
	61세 이상	40	12.9
가계소득	연 천만원 이하	73	23.6
	연 천만원-2천만원	74	23.9
	연 2천만원-3천만원	97	31.4
	연 3천만원 이상	65	21.0
직업	자영업	37	12.0
	생산직	8	2.6
	공무원	18	5.8
	전업주부	24	7.8
	판매서비스	9	2.9
	무직	31	10.0
	사무직	57	18.4
	기타	125	40.5
	중졸이하	16	5.2
	고졸	133	43.0
학력	대졸	123	39.8
	대학원	22	7.1
	기타	15	4.9
전체		309	100.0

근무지역은 D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83.2%)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북부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6.1%),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3.6%), 그 외지역이 (7.1%) 이었다.

표 2.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퍼센트
가족구성	1인 가족	20	6.5
	2인 가족	74	23.9
	4인 가족	146	47.2
	그 외	69	22.3
거주지	생연1동	45	14.6
	생연2동	41	13.3
	중앙동	21	6.8
	보산동	17	5.5
	불현동	41	13.3
	송내동	75	24.3
	소요동	21	6.8
	상패동	48	15.5
거주기간	3년 이내	63	20.4
	3년-5년	48	15.5
	5년-10년	61	19.7
	10년-20년	62	20.1
	20년 이상	75	24.3
근무지역	동두천시	257	83.2
	경기북부	19	6.1
	서울	11	3.6
	그 외 지역	22	7.1
전체		309	100.0

IV. 결과분석

1. 기술통계

물리적 쇠퇴지각의 평균은 3.23, 사회적 쇠퇴지각은 3.17, 경제적 쇠퇴지각은 3.32, 환경적 쇠퇴지각은 3.41, 인구부문쇠퇴지각은 3.25로 분석되었다 한편 각 변인들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왜도 (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산출한 결과, 왜도와 첨도 모두 2를 초과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었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 기술통계

변수	범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물리적 쇠퇴지각	1-5	3.23	0.90	-0.16	-0.47
사회적 쇠퇴지각	1-5	3.17	0.80	0.03	-0.14
경제적 쇠퇴지각	1-5	3.32	0.81	-0.14	-0.37
환경적 쇠퇴지각	1-5	3.41	0.75	-0.24	0.08
인구부문 쇠퇴지각	1-5	3.25	0.68	-0.02	0.39
교육복지 쇠퇴지각	1-5	2.84	0.70	0.12	0.22
집단효능감	1-5	3.01	0.68	-0.17	0.37
재생태도	1-5	3.77	0.76	-0.39	0.51

2. 지역 편차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

지역 편차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환경적 쇠퇴지각은 지역 편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평균을 비교하면 신시가지(M=3.33) 대비 구시가지(M=3.50)의 환경적 쇠퇴지각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 지역 편차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

변수	지역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	p
물리적 쇠퇴지각	신시가지	161	3.13	0.85	-1.943	.053
	구시가지	148	3.33	0.95		
사회적 쇠퇴지각	신시가지	161	3.16	0.80	-0.117	.907
	구시가지	148	3.17	0.81		
경제적 쇠퇴지각	신시가지	161	3.30	0.78	-0.432	.666
	구시가지	148	3.34	0.83		
환경적 쇠퇴지각	신시가지	161	3.33	0.73	-2.031*	.043
	구시가지	148	3.50	0.77		
인구부문 쇠퇴지각	신시가지	161	3.22	0.65	-0.930	.353
	구시가지	148	3.29	0.71		
교육복지 쇠퇴지각	신시가지	161	2.82	0.69	-0.692	.489
	구시가지	148	2.87	0.70		
집단 효능감	신시가지	161	2.99	0.67	-0.482	.630
	구시가지	148	3.03	0.69		
재생태도	신시가지	161	3.75	0.77	-0.521	.603
	구시가지	148	3.79	0.76		

* $p < .05$

3. 측정모형의 타당도 검증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변수 간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기 전에, 모형을 구성하는 잠재변수와 관측변수의 구성 타당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몇 가지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였다. 카이제곱 통계량(χ^2)은 기준에 모형 적

합도를 판단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로 χ^2 값이 작을수록 모형 적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χ^2 검증은 표본의 크기와 모형의 복잡성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고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모형 추정을 위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할 경우 χ^2 값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확인하였다.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χ^2 값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절대적합지수로 .10 이하는 보통, .08 이하는 양호, .05 이하면 매우 좋은 것으로 간주한다. 연구모형이 얼마나 잘 측정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로는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를 활용하였으며, 모두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90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간주한다. 결과적으로 모든 적합도 지수가 기준치를 상회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1) 개념 타당도 검증

개념 타당도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관측변수들이 제대로 된 개념과 정의를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타당도이다. 이는 표준화 요인 부하량이 0.5 이상이면 개념 타당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모든 표준화 요인 부하량이 0.5 이상으로 나타나 개념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2) 수렴 타당도 검증

수렴 타당도란,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관측변수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수렴타당도는 동일개념을 측정하는 복수의 관측변인들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각 변수에 대한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와 평균분산 추출 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측정하였다. 수렴타당도 평가 기준은 개념 신뢰도가 0.7 이상, 평균분산 추출 값이 0.5 이상이면 수렴타당도가 높다고 해석을 하는데, 모든 변수에서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본 모형은 수렴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3) 판별 타당도 검증

판별타당도란 서로 다른 잠재변수 간에는 그 측정치에도 분명한 차이가 나와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의 신뢰구간을 산출하였고, 이 신뢰구간이 1을 포함하지 않는지를 검증하였다.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의 신뢰구간은 상관계수에서 2×(표준오차)를 빼서 하한값을 산출하고, 상관계수에서 2×(표준오차)를 더해서 상한값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의 신뢰구간에 1을 포함하지 않아 판별타당도를 확보하였다.

표 5.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변수	관측변수	비표준화 요인부하량	표준화 요인부하량	표준 오차	C.R.	p
물리적 쇠퇴지각	X1	1.000	0.695			
	X2	1.166	0.810	0.090	12.989	***
	X3	1.166	0.807	0.090	12.948	***
	X4	1.179	0.844	0.088	13.445	***
	X5	1.000	0.767			
사회적 쇠퇴지각	X6	1.017	0.644	0.093	10.936	***
	X7	0.959	0.710	0.079	12.102	***
	X8	1.115	0.726	0.090	12.376	***
경제적 쇠퇴지각	X9	1.000	0.703			
	X10	0.848	0.685	0.081	10.449	***
	X11	1.169	0.798	0.101	11.580	***
환경적 쇠퇴지각	X12	1.000	0.663			
	X13	1.146	0.752	0.112	10.212	***
	X14	1.114	0.734	0.110	10.089	***
인구부문 쇠퇴지각	X15	1.000	0.620			
	X16	1.213	0.754	0.134	9.043	***
	X17	1.059	0.666	0.123	8.610	***
교육복지 쇠퇴지각	X18	1.000	0.687			
	X19	0.846	0.658	0.087	9.767	***
	X20	0.949	0.711	0.092	10.355	***
집단 효능감	X21	0.937	0.696	0.092	10.202	***
	Y1	1.000	0.698			
	Y2	1.276	0.818	0.098	13.042	***
재생태도	Y3	1.358	0.836	0.102	13.281	***
	Y4	1.202	0.748	0.100	12.073	***
	Y5	1.277	0.717	0.110	11.613	***
재생태도	Z1	1.000	0.867			
	Z2	1.051	0.855	0.060	17.547	***
	Z3	0.945	0.813	0.057	16.700	***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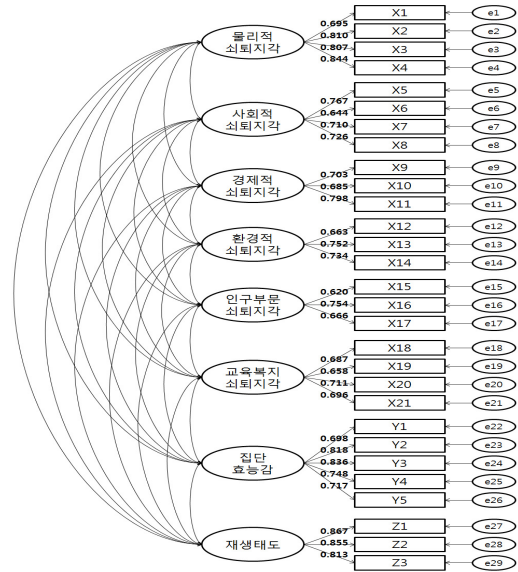


그림 1.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4. 구조 방정식 모형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쇠퇴 지각을 구성하는 여섯 가지 변수가 집단 효능감과 재생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먼저 변수들 간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기 전에,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산출한 결과, RMSEA와 RMR은 .08 미만으로 나타났고, GFI와 AGFI는 0.9에 근사한 수치를 보였으며, TLI와 CFI는 0.9 이상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p	CFI	TLI	GFI	AGFI	RMR	RMSEA
671.149	349	<.001	.922	.909	.872	.840	.044	.055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잠재변수 간 영향 관계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쇠퇴지각이 집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사회적 쇠퇴지각은 집단효능감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330, p<.05$). 즉 사회적 쇠퇴지각 수준이 높아질수록 집단효능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에 나머지 쇠퇴지각 변수들은 집단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다.

표 7. 구조모형 분석 결과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CR	p
물리적 쇠퇴지각	→ 집단 효능감	0.094	.136	.081	1.168	.243
사회적 쇠퇴지각	→ 집단 효능감	-0.244	-.330	.105	-2.321*	.020
경제적 쇠퇴지각	→ 집단 효능감	-0.104	-.144	.090	-1.163	.245
환경적 쇠퇴지각	→ 집단 효능감	0.150	.175	.096	1.558	.119
인구부문 쇠퇴지각	→ 집단 효능감	-0.131	-.145	.095	-1.376	.169
교육복지 쇠퇴지각	→ 집단 효능감	0.008	.010	.084	0.092	.927
물리적 쇠퇴지각	→ 재생 태도	0.239	.248	.110	2.170*	.030
사회적 쇠퇴지각	→ 재생 태도	-0.257	-.250	.145	-1.780	.075
경제적 쇠퇴지각	→ 재생 태도	0.114	.113	.121	0.942	.346
환경적 쇠퇴지각	→ 재생 태도	0.313	.262	.133	2.359*	.018
인구부문 쇠퇴지각	→ 재생 태도	0.215	.171	.130	1.652	.099
교육복지 쇠퇴지각	→ 재생 태도	-0.117	-.109	.113	-1.036	.300
집단 효능감	→ 재생 태도	0.121	.087	.093	1.305	.192

* p<.05

다음으로 쇠퇴지각이 재생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물리적 쇠퇴지각($\beta=0.248, p<.05$)과 환경적 쇠퇴지각($\beta=0.262, p<.05$)은 재생태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물리적 쇠퇴지각이나 환경적 쇠퇴지각 수준이 높아질수록 재생태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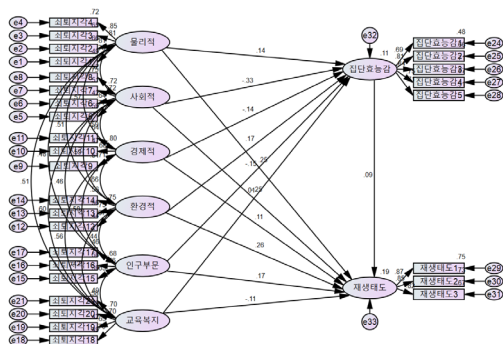


그림 2.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결과

V. 연구 결과의 논의

도시쇠퇴 문제를 확인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시쇠퇴실태의 정확한 파악과 진단이 필요하다. 도시쇠퇴현상은 사회, 경제, 산업 등의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고 그결과는 정량적, 혹은 정성적 현상으로 나타나므로 양측 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지방 소도시에서 구 도시 주민들의 재생태도에 대한 쇠퇴지각(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인구부문, 교육복지)에 대하여 더욱 살펴보고자 하였다. 앞으로 사회문제 중 에서 양극화 되어가는 상대적 도시의 불균형으로 지역발전을 연구하는 정책적인 도시발전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바 결과는 경기북부 D도시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결과에 의하면, 첫째, 사회적 쇠퇴지각 수준의 차이가 클수록 집단효능감은 부적 강화되어 점점 사회공동체는 멀어지고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것은 현재 생활상에서 서로 이기적인 개인의 이익을 반영한 듯하다.

둘째, 환경적 쇠퇴지각은 재생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지역 편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5$). 평균을 비교하면 신시가지(M=3.33) 대비 구시가지(M=3.50)의 환경적 쇠퇴지각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쇠퇴지각이 재생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물리적 쇠퇴지각($\beta=0.248, p<.05$)과 환경적 쇠퇴지각($\beta=0.262, p<.01$)은 재생태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물리적 쇠퇴지각이나 환경적 쇠퇴지각 수준이 높아질수록 재생태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점은 지역 구성원들이 물리적인 면과 환경적인 면에서는 그 미치는 원인이 높을수록 재생을 위한 태도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열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넷째는, 집단 효능감에 대한 결과로 사회적 쇠퇴지각이 클수록 집단 효능감도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쇠퇴지각이 재생태도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재생태도에 대하여

사회적 쇠퇴지각과 물리적 쇠퇴지각은 모두 영향을 주었고, 사회적 쇠퇴지각은 집단효능감에 부적 강화에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집단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쇠퇴원인을 해결하는 사회적 배려와 지각수준을 이해 할 수 있는 사회 친화적 협력프로그램이 요구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 간 에 존중과 소통에서 오는 이타적 관계성을 위해 주민이 같이 참여하는 통합프로그램이 바람직 할 것이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작은 성취를 통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공동의 목표의식을 갖고 추진하는 지역을 고려한 사업 계획을 세우며, 지방정부와 주민, 전문가, 기타의 이해집단들이 집단 효능감을 높이는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쇠퇴현상에 대한 정량적 요인 뿐만 아니라 정성적 요인에 대한 다양한 현상을 종합하여 도시쇠퇴 수준 및 특성을 위한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 져야 한다.

참 고 문 헌

- [1] 구자룡, 이정훈 “도시브랜드 자산의 평가와 지수화에 관한 연구,” 생산성논집, 제22권, 제3호, pp.177-205, 2008.
- [2] 이세규 “뉴타운 사업지구 주민들의 재개발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1권, 제3호, pp.207-238, 2010.
- [3] A. Bandura,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NJ. 1986
- [4] M. Riggs and P. Knight, "The Impact of Perceived Group Success-Failure on Motivational Beliefs and Attitudes: A Causal Model,"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79, No.5, pp.755-766, 1994.
- [5] 조진희, 이동건, 황희연, “도시쇠퇴 수준 및 특성 유형화,” 국토지리학회지, 제44권, 제1호, pp.35-50, 2010.
- [6] 박병호, 김준용, “복합쇠퇴지수를 활용한 지방도시 동태적 쇠퇴유형 연구,” 지역연구, 제26권, 제2

호, pp.3-17, 2010.

- [7] 임준홍, 황재혁, 임관률, “충청권 도시 쇠퇴의 특성과 영향 구조 분석- 전문가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제3권, pp.123-139, 2009.
- [8] 이상대, *서울 내부 시가지 쇠퇴현상 진단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9] 한경원, “낙후지역 지역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2권, 0호, pp.1-16, 2012.
- [10] 곽현근,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동네효과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2권, 제4호, pp.203-225, 2008.
- [11] 장희순, 송상열, “우리나라 비성장형 도시의 특성분석에 관한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9권, 제9호, pp.73-94, 2007.
- [12] 정윤길, 이규만, “변혁적 리더십과 집단 효능감 및 팀 유효성간의 관계,” 한국행정논집, 제9권, 제9호, pp.1053-1073, 2007.

저 자 소 개

황 희 숙(Hee-Sook Hwang)

정회원



- 1999년 2월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행정학석사)
- 2007년 2월 : 상명대학교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행정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 복지행정, 사례관리